

Joseph Needham을 추모함

전상운

성신여대

Joseph Needham. 당신은 유난히도 한국의 인삼차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60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인삼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산다”면서 인삼차를 마시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니덤 연구소의 커먼룸에서 정말 조촐하게 가졌던 당신의 91세 생일 파티에서도 당신은 커피, 홍차, 녹차, 인삼차 중에서 제일 먼저 “인삼차!”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인삼과 한약,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의 오묘한 과학성을 생각하게 된다고 언젠가 나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1968년에 홍콩대학교 중치 칼레지에서 가졌던 동아시아 과학사 전문가 회의에서 니덤을 논하는 시간에 당신이 유기체론자나 기계론자나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동양과 서양의학을 통합한 “Universal Medicine”의 출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 대한 당신의 사상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카야마 시게루(中山茂)는 당신을 「명예 다오이스트(道士)」라고 불렀지요. 당신이 매우 기뻐하고 만족스러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화의 과학과 문명을 추구하여 일생을 바친 생화학의 선구자이고 과학사학자이며 중국학자이고, 유물론자이면서 종교인이었던 당신의 삶과 사상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위대한 학자로서 이렇게 추모하게 되는 마음이 한없이 아픕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1959년부터 맺어졌습니다. 한국과학사에 평생을 걸기로 마음을 굳혀가는 시기였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저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내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George Sarton에게 받은 것 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야부우찌 스쿨”이라고 부르는 교오포(京都) 학파의 중국과학사 연구와는 또 다른 학문 세계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60년대 초에 당신은 내게 17세기 송이영의 혼천시계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학사를 과제로 한 당신과 나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니까, 30년의 친교가 됩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 훌륭한 스승이었고, 학문적 후원자로서 많은 도움을 직접 간접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몇 사람의 학자와 학술재단에 쓴 나에 대한 높은 평가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놀라워하면서 내게 알려 주어서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했지만, 당신은 한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Chon Sangun”하고 부르면서 혈육과도 같은 정을 담은 시선을 주곤 했습니다. 학문으로 맺어진 인연을 넘어선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Cambridge 대학의 생화학자가 만학으로 학문을 공부해서 그토록 난해한 중국의 옛 과학기술 문헌을 읽고 중국의 과학기술과 사상을 영어로 쓰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나를 열광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연구 업적이 없었더라면 내 한국과학기술사의 연구는 아마도 5년에서 10년은 더 늦게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그 현대적인 문장은 중국 과학문명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신을 20세기 최대의 동양 학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학 및 과학사상의 연구에서 당신은 분명히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Needham 연구소는 그래서 더욱 빛나는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독특한 협동 연구 방식은 중국 및 한국 일본의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탁월한 지도력은 당신의 이름을 가진 훌륭한 연구소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거인(巨人) Joseph Needham을 영원히 살아있는 스승으로 남아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개척한 학문의 세계는 야부우찌의 그것과 함께 교오또(京都)와 서울, 그리고 베이징(北京)과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동서양의 조화로 더욱 발전하고 승화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윗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의 세계에서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